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자원 개발과 투자전략

권다옥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러시아학과 석사과정)

목 차

- I. 서론
- II.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산업현황과 정책
 - 1. 에너지 자원의 현황
 - 2. 석유가스 수송망 체계
 - 3. 에너지 정책
- III. 우즈베키스탄의 투자 리스크 분석(OR 일반 투자환경 분석)
 - 1. 자원개발관련 세제 및 계약방식
 - 2. 투자 리스크
- IV. 한국의 對우즈베키스탄 투자 전략 및 전망

I. 서론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석유·가스에 대한 관심과 개발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각 국가들은 에너지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풍부한 석유·가스 매장량을 바탕으로 자원 확보의 전략적 요충지로 떠오르고 있는 중앙아시아에 높은 관심이 나타나고 있으며, 에너지확보를 위한 노력이 경쟁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비개방적 정책태도나 경제개혁 의지 부족, 주변국에 비해 에너지자원 부존규모가 적어 국제적인 관심을 끌지 못했던 우즈베키스탄은 최근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정책과 자국의 경제개혁의지를 보이면서 이곳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최대인구를 보유한 우즈베키스탄은 천연가스 세계 10위, 금 세계 5위 등 100여종의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에너지 자원부국이다. 그러나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기존 광구 에너지 정체 및 신규투자사업 부진으로 인한 생산 감소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은 자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유치를 적극 모색하고 있고 이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예로 2004년 러시아의 Lukoil사는 우즈베키스탄 정부, Uzbek neftegaz 국영석유회사와 Qongiro, Shodi, Hauzak 및 Kandym 광구를 개발하기 위한 생산물분배협정(PSA)에 체결 및 현재 프로젝트 진행단계에 있으며¹⁾, 러시아 가스프롬은 Uzbekneftegas와 합작으로 우스출토 지역의 천연가스전 개발에 참여하여 연간 80- 100억 m³의 가스를 생산하며, 향후 단계적으로 구입을 확대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²⁾

중국 Sinopec사는 우즈베키스탄 동부 Andijan과 Namangan 지역 유전 탐사, 추출 및 유전 개보수 작업에 1억 6백만 달러를 투자하였고, 이 해 Uzbekneftegas와 중국 CNPC사가 우즈베키스탄 서부 Bukhara와 Kivia 지역 유전 탐사를 위해 6억달러 규모의 합작회사 설립계약을 체결한바 있다.³⁾ 그 외일본 Mitsui &

1) Azer-Press (2005. 5. 7)

2) FujiSankei Business i. (2005.3.22)

Co. Ltd.사와 Maruben사는 약2억 달러 규모의 Tashkent State Regional Power Plant(GRED) 개보수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으며⁴⁾, 한국도 역시 한국석유·가스 공사 등이 아랄해 가스전, 수르길 가스전 등에 생산물 분배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우즈베키스탄의 자원개발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에는 여전히 구소련 시절의 만행과 관료제가 남아있고 외환관리가 지나치게 규제되는 등 에너지투자를 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나라가 우즈베키스탄 에너지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을 펼쳐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산업현황과 정책을, 3장에서는 자원개발관련 세제 및 투자 리스크를, 4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우즈베키스탄 에너지자원 분야의 투자전략을 세워보고자 한다.

II.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산업현황과 정책

1. 에너지 자원 현황

우즈베키스탄은 풍부한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원유보다는 천연가스 중심으로 에너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6년 우즈베키스탄의 천연가스 보유량은 66.01조ft³로서 전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스전이 1960~70년대부터 생산해 온 노후화 된 가스전⁵⁾들이라 고갈현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가스를 대체할 신규투자사업도 부진함에 따라 가스 생산의 정체 및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탐사가 진행될 경우 추정매장량은 약 5억 5,000억m³으로 전세계 매장량의 약 5%를 차지하는 상당한 양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유·가스 수급 현황⁶⁾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원유	매장량(10억 배럴)	0.6	0.6	0.6	0.6	0.6	0.6	0.6
	생산량(천b/d)	171	171	166	152	126	125	114
	소비량(천b/d)	135	130	148	134	139	143	143
가스	매장량(조 ft ³)	63.32	63.32	63.67	65.57	65.32	66.01	-
	생산량(10억 m ³)	53.6	53.5	53.6	55.8	55.0	55.4	58.5
	소비량(10억 m ³)	51.1	52.4	47.2	44.8	44.0	43.2	45.6

자료 : BP(2007)

우즈베키스탄의 천연가스 산업에서 주목할 점은 많은 양의 천연가스를 생산하지만 이 생산량의 약 78% 이상을 국내에서 소비하고 나머지 일부만을 인접국가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으로(연간 100억m³)에

3) Associated Press Newswires (2005.7.19)

4) Interfax Energy News Service (2005.7.14)

5) Uchkyr, Yangikazgan 가스전

6)

http://www.bp.com/liveassets/bp_internet/globalbp/globalbp_uk_english/reports_and_publications/statistical_energy_review_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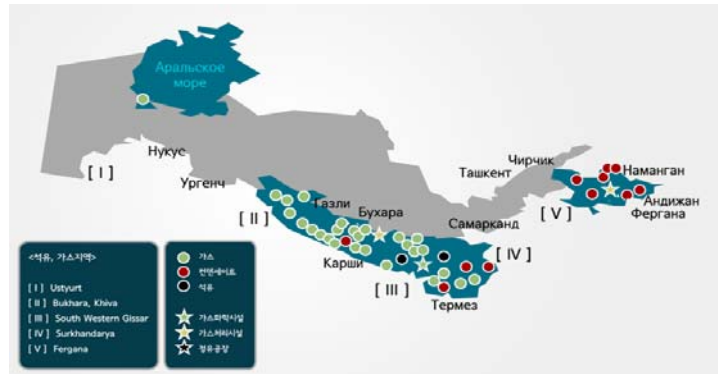
수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44개의 가스전 중 12개의 가스전(Shurtan, Gazli, Pamuk, Khauzak 등)에서 전체 생산량의 95%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며 Daraya지역과 Mubarek지역에 대부분 분포되어 있다.⁷⁾

우즈베키스탄은 Fergana, Alty-Arik, Bukhara의 3개의 정유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정유능력은 22만 2,000b/d이다. 특히 Bukhara 정유공장은 구소련시기에 4억 달러를 투자하여 건설된 최초의 정유공장으로 일일 정유능력은 5만 b/d이며, 향후 10만 b/d로 증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Fergana 정유공장의 일일 정유능력은 106,000b/d로서 지난 2001년 일본의 미쓰이사가 2만달러를 투자해 이 정유공장의 탈황시설을 개보수 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 정유소들은 최근 산유량 감소로 가동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공장 가동을 위해 러시아로부터 일일 8만 2,000톤의 원유를 수입해 정유소의 부족 정류량을 충족시키고 있다. 이렇게 정제된 석유제품은 철도와 도로를 이용해 흑해 수출항구와 인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⁸⁾

우즈베키스탄 유·가스 현황



자료 : Uzbekneftegaz

2. 수송망 체계

우즈베키스탄의 생산된 석유·가스 대부분이 국내에서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용 수송망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우즈베키스탄의 수출용 송유관은 카자흐스탄 Shymkent 정유공장과 투르크메니스탄 Chardzhou 정유공장을 연결하는 송유관을 제외하면 국제송유관이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천연가스는 러시아 소유의 CAC 파이프라인과 카자흐스탄 Tashkent에서 키르기스스탄의 Bishket을 경유해 카자흐스탄의 Almaty에 이르는 가스관을 통해 수출되고 있다.

그 중 CAC 파이프라인은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를 러시아로 수출하는 역할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의 가스를 수송하기에는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2007년 5월 러시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4개국은 CAC 가스관의 수송능력을 650m³에서 750~800억m³ 으로 늘리기로 합의함으로써 우즈베키스탄의 불규칙한 가스 공급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우즈베키스탄 송유관, 가스관 현황

7) 『계간가스산업』 제5권 2호, 한국가스공사

8)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산업 현황과 정책」, 동북아에너지연구센터

9) http://www.oilgas.uz/en/2006/news_items/Gazprom_expand/



출처 : EIA, www.eia.doe.gov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와 2012년까지 연간 100억 m³의 가스 수출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년 가스 수입량을 전년보다 44% 늘어난 130억 m³로 수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장기적이고 보다 더 이윤적인 가격으로 수출을 할 수 있게 되었다.¹⁰⁾

그 외 일부 천연가스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카자흐스탄 Tashkent에서 키르기즈스탄의 Bishket을 경유해 카자흐스탄의 Almaty에 이르는 가스관을 통해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스탄으로 수출되고 있다.¹¹⁾

이처럼 우즈베키스탄은 자국의 에너지를 수출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없기 때문에 송유관 건설이 시급한 상황이며 여러 국가들과 송유관 건설에 대해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1994년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원유를 아프가니스탄을 경유해 파키스탄의 아라비아해 연안 항구로 수송하는 CAOP(Central Asia Oil Pipeline) 건설에 대해 MOU를 체결하였고(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정정불안으로 송유관 건설에 대한 진전은 없는 상태), 최근 중국 등을 포함해 투르크메니스탄과 신규우회배관 사업 등이 활발하게 논의를 띄고 있어 향후 천연가스 개발은 활기를 띠 전망이다.

3. 에너지 정책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현 이슬람카리모프 대통령의 장기집권으로 나타나는 국민들의 불만 해소와 경제성장에 원동력인 천연가스 생산량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¹²⁾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가스의 대부분은 60-70년대부터 생산해왔기 때문에 현재 고갈 현상이 진행되고 있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신규투자의 부진함으로 가스 생산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유전을 개발하지 않는 한 우즈베키스탄의 가스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새로운 가스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생산량 감소에 대한 타개책으로 중국 CNPC사와 Uzbekneftegaz사는 Bukhara와 Khiva 지역의 유전을 개

10) Russian companies Gazprom, Lukoil, Soyuzneftegaz, Strointransgaz cooperate with Uzbekistan. Gazprom has an export contract of supply of 13 billion cubic meters of Uzbek gas in 2007.

Under a programme of geological surveys, the Russian concern will invest up to US\$400 million into the Ustyurt plateau in 2006-2011. Of this sum, US\$260 million will be invested within the next three years. The total cost of the package of agreements on investment projects between companies of the two countries in the fuel and energy sector reaches over US\$3 billion. The implementation of these agreements will enable Uzbekistan to boost the exports of gas to 20 billion cubic meters by 2012.

11) 이 가스관을 통한 가스수출은 과거 우즈베키스탄의 불규칙한 가스공급,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스탄의 가스대금연체와 불법 가스 인출 등으로 이들간에 긴장관계가 조성되었으나, 현재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 강명규, 「중앙아시아 에너지개발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 과제」

발하기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말레이시아 Petronas사와 합작법인 설립계획을 발표하는 등 외국 석유회사의 소형 유전개발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즈베키스탄 석유·가스전 개발사업은 주로 Bukhara-Khiva, Ustyurt, Surkhandarya, Fergana, Gissar 지역에서 이루어져왔다.¹³⁾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Kashkadarya 지역의 기존 가스·컨덴세이트전의 확장하여 연간 40억m³를 추가로 증량하고 Bukhara 지역내 Umid, Samantepe 가스전, Ustyurt 지역내 Surgil 가스전 등 기존의 가스전¹⁴⁾과 새로운 가스전을 개발하여 연간 50억m³의 가스를 생산할 계획으로 2010년까지 약 100억m³ 정도로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조세제도, 자원 관련 법·제도 개정하여 열악한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3년에는 투자비 회수기한이 종래의 1년에서 계약에 규정된 기간으로 연장되는 등 생산물분배협정(PSA)이 개정되었고¹⁵⁾, 석유·가스의 탐사와 생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¹⁶⁾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러시아와 중국, 한국 등의 투자 확대에 따라 석유·가스전 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가스 생산 및 수출 현황 및 전망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생산량	55.8	52.9	53.9	52.7	52.1	50.2	47.5
수출량 -러시아	8	10	10	10	10	10	10
여타주변국	2		전년과 유사수준/증가예산				

출처 : Wood Mackenzie, Central Asia Upstream Service, 2004

III. 우즈베키스탄의 투자 리스크 분석

1. 조세제도 및 에너지 자원 계약방식

우즈베키스탄의 유·가스 산업관련회사는 Uzbekneftegaz가 거의 모든부분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개발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기업은 유·가스전의 탐사와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국영석유가스공사인 Uzbekneftegaz와 자원개발 계약을 체결하여 에너지 개발을 해야 한다.¹⁷⁾

우즈베키스탄의 조세제도는 법인소득세 인하와 석유 및 가스 컨덴세이트에 대한 소비에 철폐 등 국제적 기

13) 2005년 기준, 지역별 가스 생산비중은 Bukhara-Khiva 47%, Ustyurt 41%, Surkhandarya 10%, Fergana 1%, Gissar 1%이다.

14) Gissar 지역에도 작업계획이 있지만, 최소규모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Fergana와 Gissar 지역은 미래 가스 사업의 주요 지역으로 보기 어렵다.

15) 2001년 영국 에너지기업 Trinity Energy가 Ustyurt 및 Gissar지역 가스개발에 대한 생산물분배협정을 체결하였으나, 2005년 계약조건의 불이행으로 계약을 파기하였다. 비록 계약이 파기되기는 하였지만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최초의 PSA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6) 이미 발견된 유전의 지속적인 탐사를 시행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 부여, 새로운 지역에서 탐사를 할 수 있는 우선권 부여, 석유·가스의 탐사작업기간동안 진행되는 장비, 재료, 기술자원에 대한 관세 면제, 석유와 가스의 생산개시연도부터 법 인세는 7년동안 면제, 소득세는 현행세율의 50% 적용.

17) 『계간가스산업 2006년 6월 제5권 2호』, 김경식

준에 부합하는 조세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각종 법령을 정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법령과 달리 과세되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¹⁸⁾

우즈베키스탄 지하자원관련 세금으로는 천연자원채굴세(subsurface use tax), 심토사용세(suboil use tax), 소비세 등이 있다. 천연자원채굴세¹⁹⁾는 자원개발이나 천연자원의 사용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내는 세금을 말하며, 과거 로열티(Royalty)로 불리우기도 했다. 2005년에 석유와 가스의 세율은 각각 12%, 18.5%였으나, 2006년에는 35%, 58%로 대폭 상승하였고, 2007년부터는 다시 20%, 30%로 각각 하락하였다.²⁰⁾ 심토사용세는 지하 천연자원 발굴과 관련된 세금으로, 세율은 심토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소비세는 천연가스 사용세, 석유 사용세, 가스 콘덴세이트 사용세 등이 있으며 이들의 2007년 적용세율은 2006년에 비하여 각각 28%, 20%, 12% 인하되었다.

우즈베키스탄 조세 및 세율 변화²¹⁾

조세		" 06년 세율(합작방식)	" 06년 세율(PSA)	" 07년 세율
소비세	천연가스	19	면제	미확정
	가솔린	45	면제	28
	경유	40	면제	25
지하 자원 채취세	천연가스	58	58	30
	석유	35	35	20
	컨덴세이트	32	32	20
이윤세		12	12	10
부가가 치세	내수	20	20	미확정
	수출	면제	면제	면제
교육세		1	면제	미확정
사회세		1.5	면제	미확정
도로세		0.7	면제	미확정
사회 기반시설 개발세		8	면제	미확정

자료 : Uzbekneftegaz

우즈베키스탄의 자원개발방식은 합작투자방식과 생산물분배계약방식이 있다. 합작투자방식에는 유·가스전 개발을 위한 탐사·생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계약시 체결된 합작투자 비율만큼 각각 지불하고, 후에 생산된 유·가스의 판매로 얻은 수입도 합작투자 비율만큼 나누는 방식을 말한다.²²⁾ 이 합작투자방식은 정부나 국영 유·가스회사와 개발자가 탐사단계에 합작투자하는 순수 합작투자, 개발단계에 합작투자하는 전형적인 합작투자, 그리고 자본투자 없이 생산 후 이윤만을 분배하는 러시아형 합작투자로 나뉜다.²³⁾ 이 중 우즈베키스탄

18) 「우즈베키스탄 유·가스전 개발 투자환경 및 계약의 특성 분석」, 김경식

19) The payers are both the legal entities extracting minerals and legal entities processing minerals. The taxable base for this tax would be the value of extracted(processed) minerals.

20) 『중앙아시아 에너지자원 개발 진출 전략 연구(Ⅱ)』, 산자부·예경연

21) 『중앙아시아 에너지자원 개발 진출 전략 연구(Ⅱ)』, 산자부·예경연

22) 『중앙아시아 에너지자원 개발 진출 전략 연구(Ⅱ)』, 산자부·예경연

23) 순수합작투자는 탐사단계부터 모든 비용과 위험을 공유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어 투자자에게 유리하지만, 러시아형 합작투자 방식은 탐사와 개발 단계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고, 생산 후 이윤은 러시아와 분배해

은 순수 합작투자 방식을 택하고 있어 탐사단계부터 모든 비용과 위험을 공유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다.

생산물분배계약 방식은 투자자의 비용으로 지하자원을 탐사, 시추, 개발, 생산의 업무를 수행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보상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계약이다.²⁴⁾ 우즈베키스탄의 생산물분배계약은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생산 보너스 지불방식²⁵⁾과 이윤생산물 분배방식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생산물분배계약은 일일 생산량에 따라 정부 혹은 국영기업과 개발시간에 분배 비율이 변동하는 분배방식에서 향후 투자수익률에 따른 이윤분배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즈베키스탄 에너지 개발에 참여시 우즈베키스탄 고유의 조세체계와 자원개발 방식인 합작투자 방식과 생산물분배계약 특성을 세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2. 투자리스크

이와 같이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자국의 에너지개발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를 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먼저 우즈베키스탄 정부만이 지하자원을 탐사, 시추,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가가 지하자원을 탐사, 시추, 개발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 자원개발에 참여하려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우즈벡 지질위원회나 Uzbekneftegaz 등의 국영지주회사에서 정부의 위임을 받아 탐사·데이터 관리 등 실질적인 담당 업무를 하고 있다.²⁶⁾

둘째,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우즈베키스탄에 늦게 진출하였다는 점이다. 이미 러시아가 에너지 통신 등 이 지역의 전략산업분야를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은 에너지 분야 뿐 아니라 저가 공산품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중앙아시아 지역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우리기업들은 후발주자의 불리함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²⁷⁾

셋째, 우즈베키스탄에는 아직까지 구소련 시절의 관료주의 관행이 뿌리 깊이 남아있고, 부정부패와 사회주의 병폐가 만연하다는 점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중앙집권적 정부의 간섭과 규제로 인해 사업의 진행 속도가 느리게 되고 비효율적으로 진행이 된다. 또한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수직적통체로서 고위급 인사나 인맥을 통한 교류 없이는 투자에 진출하기에는 매우 힘들다는 것이 현실이다.

넷째, 지나치게 외환 관리가 엄격하고 과실송금을 엄격하게 규제한다는 점이다. 현재 외국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부딪치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환전·송금 문제다. 법적으로는 외환 송금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금액, 용도에 따라 송금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과실송금이나 소비재 수입을 위한 자금의 경우 환전·송금이 더 어렵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진출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리스크 요인일 수밖에 없다.

다섯째, 우즈베키스탄의 자원개발에 관한 법·제도는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타국가에 비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수준이며 조세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투자법은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법규를 어길 경우에는 정부의 법적인 사유자산 강제수용을 허용하기도 한다. 최근 정부의 자원통제전략이 강화되면서 자원통제전략이 자원개발 분야의 수익성 높은 사업에 투자를 해 온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강제수용위험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투자법 보다 계약

야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불리하다. 합작투자 방식은 위험부담 수준이 순수합작투자자와 러시아형 합작투자의 중간 수준이라 할 수 있겠다.

24) 『중앙아시아 에너지자원 개발 진출 전략 연구(II)』, 산자부·예경연

25) 생산 보너스 지불방식은 보통 일정금액으로 책정되나 일일생산량에 따라 지불금액이 변동하며, 생산량이 많으면 더 많은 생산 보너스를 지급하는 합리적인 방식이다.

26) 『중앙아시아 3개국의 자원 현황과 진출방안』, 한국수출입은행

27) 『중앙아시아의 시장동향과 우리나라의 진출방향』, 고재호

체결시마다 공포되는 대통령령이 우선시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각 플젝트에 대해 외국인 투자법 뿐 아니라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대통령령 내용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²⁸⁾ 대표적인 예로 2005년 금광업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조세제도 개편으로 인한 신뢰도 저하로 인해 사업을 철수한 사례가 있고, 한국의 감을방적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사업을 정리하였다.

IV. 한국의 對우즈베키스탄 투자 전략 및 전망

우즈베키스탄은 막대한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폐쇄정책으로 인해 빛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광구의 고갈현상 및 신규에너지 투자부진 등으로 원유·가스가 정체 및 감소현상을 보이자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며 에너지 개방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미 여러 국가들이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투자를 하기 위해 생산물분배계약체결 등을 맺고 있으며, 한국 역시 우즈베키스탄과 1992년 1월 국교 수립 이후 다방면에 걸쳐 활발한 교류를 전개해오고 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너무 늦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후발주의자의 불리함을 알고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불리한 요인보다는 다른 국가에 비해 강점이 되는 요인이 많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자원개발 사업에 있어 한국은 자국의 주요 경제 성장 모델 및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과 전략적 파트너인 러시아, 중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뢰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²⁹⁾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최대의 인구(2600만명)을 보유하고 있고 임금수준이 저렴하며, 우리나라가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할 경우 약 20만명의 한인동포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고려인을 활용함으로써 경기침체로 인해 취업이나 소득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려인 사회에 안정적인 고용기반을 창출해줄 수 있는 등 고려인의 지위향상을 높일 수 있고 우즈베키스탄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우리나라의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자원 투자 현황

개발광구	한국 참여기업	한국 지분	추정매장량
아랄해(Aral Sea) 가스전	석유공사	20%(생산물분배협정)	3,600만 톤
나망간(Namangan) 유전	한국컨소시엄	사업성 평가 수행 (2006년 12월)	4.35억 배럴
이남(Inam)광구	한국컨소시엄	사업성 평가 수행 (2006년 12월)	7.5억 배럴

자료 : 이재영

이런 유리한 요인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 다음과 같은 진출 전략을 가지고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분야에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첫째, 우즈베키스탄은 내륙 깊숙이 위치한 지리적 한계, 수송 인프라 미비 등에 따른 초기 투자 및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호 조치 미흡으로 일반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나 석유공사 차원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³⁰⁾ 2005년 금광업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조세제도 개편으로 인한 부담감으로 사업

28) 중앙아시아 3개국의 자원 현황과 진출방안』, 한국수출입은행

29) 미국, 러시아, 중국이 우즈베키스탄에 대해 국가 전략에 따라 접근하기 때문에 반미성향이 강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투자현상을 축소시키기 위해 한국의 투자를 선호하고 있다.

30) 「중앙아시아 3개국의 자원 현황과 진출방안』, 한국수출입은행

을 정리하는 등과 같은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진출할 시에는 불확실한 투자법에 대해 대비하여 생산물분배협정을 체결하여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함이 좋을 것이다.

둘째, 우즈베키스탄의 공장과 설비는 구소련시절에 설립되어 상당히 노후화되어 이들에 대한 개보수가 시급하므로 부자가치는 낮지만 향후 신규 프로젝트의 수주기회 확보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영기업의 민영화 계획을 예의 주시하면서 지분 참여를 통한 플랜트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 차원에서 EDCF와 한국국제협력단의 유무상 원조를 통해 국가 이미지 개선하고, 우즈벡 정부와 협력을 통해 지원가능 프로젝트를 선별하고 우리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31)

넷째, 우즈베키스탄의 가스전 사업은 이미 러시아가 오래전부터 참여해왔었고 당분간 러시아 중심으로 이루어 질 가능성이 많으므로 러시아와 협력을 바탕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도 우즈베키스탄과의 장기적인 가스협력을 맺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들 국가와의 사업 공동 참여 및 사업별 협력방안에 대한 마련이 필요하다.32)

이와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분야에 대해 투자를 한다면 양국간의 가스사업협력은 더욱 활력을 띠는 것이다. 이미 2005년 양국 정부간 자원개발 협정으로 인해 사업협력의 토대가 마련되었고, 이후 양국간 자원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어서 향후 양국간 사업협력은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중앙아시아 국가 중 우즈베키스탄은 우리나라와 가장 빈번한 정상외교를 가지면서 교류가 활발하였고, 이 교류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같은 민족성을 지닌 국가이미지로 접근을 한다면 우즈베키스탄에겐 훨씬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높은 경제구조의 보완성, 특히 IT강국이란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를 잘 활용하여 우즈베키스탄과 교류를 하게 된다면 우즈베키스탄은 자원을 자공하고 우리나라는 가전, IT제품을 공급하는 등의 상호보완성의 형태로 양국간의 관계는 더욱 발전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명구, 『중앙아시아 에너지개발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 과제,???』
 고재호, 『중앙아시아의 시장동향과 우리나라의 진출방향』, 수은해외경제, 2007.6.
 산자부·에경연, 『중앙아시아 및 카스피해 지역 에너지 자원 개발 진출전략』, 2006.6.
 김겸, 『시장경제체제 전환국들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전략』, 국제경영리뷰 제9권 제2호
 김경식, 『계간가스산업 2006년 6월 제5권 2호』, 한국가스공사, 2006.6.
 산은경제연구소, 『지역연구시리즈Ⅱ』, 산은경제연구소, 2007.11
 산자부·에경연, 『중앙아시아 에너지자원 개발 진출 전략 연구』, 정책연구 구보고서, 2007.12
 송기재 외. 2001. 10. 『우리기업의 對CIS 진출확대 방안』. 한국수출입은행.
 유재형, 『우즈벡 기업부담 주요 세계 현황』, 한수출입은행 해외 경제연구소, 2006.6.
 이재영·신현준, 『중앙아시아 자원개발,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08.4.
 이재영·신현준,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 중앙아시아』,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12.
 이재영·박상남,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2007.,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재영, 『러시아·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자원외교 전략』, 정세와 정책(통권 144호), 세종연구소, 2008.4.
 이재홍, 『국별리포트 우즈베키스탄』, 수은해외경제, 2008.10.
 이재영, 『한국의 중앙아시아 에너지 자원 개발 참여 확대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李載榮·申鉉俊·金善英, 『우즈베키스탄의 정치·경제 현황과 경제협력방 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코트라 해외조사팀, 『리비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동향 및 우리나라와의 교역관계』, 2006.,

31) 「중앙아시아 3개국의 자원 현황과 진출방안」, 한국수출입은행

32) 『중앙아시아 및 카스피해 지역 에너지 자원 개발 진출전략』, 산자부·에경연,

코트라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 『우즈베키스탄 육상 2개 광구에 대한 ‘공동 평가 및 탐사 기본 합의서’ 체결』, 한국석유공사 보도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우즈베키스탄 진출시 법률환경』, 한국수출입은행, 2007.11.,

한국수출입은행, 『중앙아시아 3개국의 자원 현황과 진출방안』, 한국수출입은행 특별조사자료, 2007.

해외경제연구소 동북아팀, 『2008년 상반기 우즈베키스탄 사회경제 개발실적』, 해외경제연구소, 2008.8.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우즈베키스탄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한국수출입은행, 2008.7.

황광수, 『중앙아시아 천연가스 사업 현황과 전망』, 계간가스산업 제5권 제2호, 2006.6.

KEEI 동북아에너지연구센터,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산업 현황과 정책』, 동북아에너지연구센터, 2007.4.

Allison, R. and Johnson, L. 『Central Asian Security: New International Context』, 2001.

Gregory Gleason, 『Foreign policy and domestic reform in Central Asia』, Central Asian Survey 2000.

Resul Yalsin, 『The Rebirth of Uzbekistan: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in the Post-Soviet』, 2002

Tax alert : Major changes in tax legislation, Pricewaterhousecoopers 2008.1.3